

# 7세대 그랜저 사전계약 11만대... “차원 다른 새 경험 선사”

##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출시

올 판매목표 1.1만대 뛰어넘어  
내년 목표량 11.9만대 맞먹어

“36년 쌓은 브랜드 헤리티지 위에  
첨단기술·디테일 더한 혁신모델”

4개 트림으로 3716만원 부터  
하이브리드, 인증 마무리 후 출시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의 인기가 예상치 못하다.

7세대 그랜저는 과격적인 디자인은 물론 실내 공간에는 럭셔리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여기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인 크기도 키웠다. 이전 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요소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사전 계약에는 1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첨단기술’ 완벽한 변신...사전계약 11만대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출시한 ‘디 올 뉴 그랜저(이하 그랜저)’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전임에도 10만9000여명의 사전계약을 이끌어냈다. 현대차가 올해 연말까지 판매목표로 잡은 1만1000대를 훌쩍 뛰어넘었고 내년 판매 목표인 11만9000대에 맞먹는 수준이다.



현대자동차가 14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디 올 뉴 그랜저 온라인 컨퍼런스 및 실차 전시’ 행사를 열고 7세대 그랜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실내모습.

이같은 성적표는 그랜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체적인 외관은 커졌다. 그랜저의 전장은 이전 모델 대비 45mm 길어진 5035mm에 달한다. 특히 차의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구성하기 위해 차의 전면부 오버행(앞바퀴 중심에서 앞범퍼 거리)을 줄이고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뒷바퀴 중심에서 차의 후면부의 수

평거리)를 각각 10mm, 50mm가량 늘렸다.

전면부의 경우 ‘끊김 없이 연결된 수평형 LED 램프’를 통해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연출했다. 이 디자인은 DRL, 포지셔닝 램프, 방향지시 등이 통합된 일체형 구조다.

실내는 슬림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 확보에 집중했다. 그랜저 실내는 ▲인체공학 기반의 슬림화 디자인 ▲버튼 최적화 ▲넓은 공간감에 주안을 뒀다. 1세대 그랜저 디자인을 따른 스티어링 휠에 전자식 변속 레버 등 조작계를 한데 모아 기존 콘솔부의 공간 활용성이 커졌다. 또 실내 전면엔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일체형으로 통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랜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 NC’를 최초로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어 업데이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카페이와 연계해 세계 최초로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이 하이패스(e hi-pass)’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처럼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사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퀵 컨트롤’을 새롭게 추가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범위는 주요 편의기능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고객은 서비스 거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친환경 모델 라인업 확대 예고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 등 친환경 라인업 확대를 예고했다.

김윤수 국내사업본부 상무는 “기존 그랜저 판매 데이터를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 증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판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으나,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를 반영해 판매 비중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그랜저 7세대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 없지만, 현대차그룹의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 맞춰 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벨3 자율주행 기반의 고속도로 자율주행(Highway Driving Pilot, HDP) 추가에 대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Highway Driving Pilot, HDP) 기능은 아직 개발 중”이라며 “그랜저의 탑재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김훈 현대차 대형 총괄 1PM(상무)가 답했다.

이번에 출시된 그랜저는 ▲2.5L GDI 가솔린 ▲3.5L GDI 가솔린 ▲3.5L LPG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가솔린 3716만원 ▲하이브리드 4376만원 ▲LPG 3863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는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다만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 적용 전 가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시점 이후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제조 자회사 설립

모트라스·유니투스 공식 출범  
모비스서 2곳 지분 100% 보유

전문·효율성 극대화 ‘시너지 기대’  
“모빌리티 패러다임 선제적 대응”

현대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제조를 각각 전담할 자회사 2곳을 공식 설립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

현대모비스는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 모트라스(MOTRAS)와 유니투스(UNITUS)가 1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설 계열사 2곳은 현대모비스가 모두 지분 100%를 보유한다. 이들 통합계열사는 전문 생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 사업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생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모듈 생산을 담당하는 통합계열사

**MOTRAS**  
**UNITUS**

명 모트라스(MOTRAS)는 Module(모듈)과 Transform(변화)의 합성어로,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부품 생산 통합계열사 사명 유니투스(UNITUS)는 Unit(부품기술)과 붙어인 Tous(통합)의 합성어로, 혁신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된 우리라는 기업 가치를 담았다.

신설되는 통합계열사는 현대모비스가 모두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현대모비스와 통합계열사는 각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과 신기술 확보, 신사업 추진 등에 집중하고, 통합계열사는 생산과 품질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유연하고 민첩한 경영 환경을 구축해,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통합계열사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위탁 생산을 수행하는 등 독자 사업 영역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자체 설비 구축, 독자 영업 역량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LG전자, 강남에 김치냉장고 팝업 오픈

LG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홍신애솔트 2호점에서 ‘LG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김치톡톡’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스토어는 김치톡톡 성능과 편리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요리연구가 홍신애와 협업했다.

/LG전자

## SKT “시각장애인 일상 행복 더해요”

SNS 포스팅으로 AI 고도화 참여

SK텔레콤이 SNS로 선한 영향력을 모아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손쉬운 SNS 포스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고도화에 참여하는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KT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SNS 챌린지를 실시해 모은 사진을 기반으로, 소셜벤처 투아트의 시각보조 AI 서비스인 ‘설리번플러스’의 학습을 지원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선한 영향력을 모아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설리번플러스’는 국내 유일의 AI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앱으로, 시각장애인들과 저시력자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사람·글자·사물·색상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T와 투아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선한 영향력이 시각보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물에 대한 정보나 색상 등 특징에 대한 묘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회활동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천되는 ‘착한 한 장 챌린지’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 제주항공, 대입 수험생 항공권 특별할인

본인·동반자 1인에 20% 할인 적용

제주항공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

력시험 이후 각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과 가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수험생 특별할인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18일(성수기 제외)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해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수험생 할인 항공권 예매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웹에서만 가능하다. 예매방법은 온라인 회원가입 후 예약과정에서 ‘신분할인’을 선택한 후 탑승자 정보 입력단계에서 ‘수험생 할인’과 ‘동반자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